이웃 잘 고르는 법

(눅10:25-37)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웃 잘 고르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이웃을 잘 고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웃을 잘못 고르면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나와 가까이 집을 얻어서 사는 그 사람을 내가 고르고 말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이웃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꼭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금님에게 시중을 드는 노예들이 있다고 합시다.
노예가 임금님을 안마도 해드립니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노예를 향하여, 노예가 임금님을 향하여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도 꼭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신분상에서 얼마든지 이웃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고르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를 고르는 것에 따라서 이웃이 골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고르면 이웃도 잘 골라지고, 나를 잘 골라서 이웃을 잘 고르게 되면 거기에 영생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인 제자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자기들의 전도여행 때의 역사를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사인 네가 모르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사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랑하며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도대체 내가 이웃사랑을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사랑은 자기가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내게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액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주택을 많이 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도대체 아파트 맞은편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니까 실지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고, 태풍이 몰아쳐서 수재민이 생기면 구호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정도, 교회에서 고아원을 방문할 때 따라가는 그런 정도, 거지가 오면 수위아저씨가 오백 원씩 건네주는 그런 정도, 그걸 이웃사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웃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방법도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웃에 따라서 사랑이 생겨야 되는데, 이웃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웃을 고른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사람의 비유말씀을 다 하신 뒤에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하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대로 옮겨와서 사마리아사람의 비유 속으로 갖고 들어가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유대

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로 가는 길 도중에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나고 사마리아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여리고로 가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 이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면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사람은 개로 취급하고 있었고 원수로 취급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웃이 바뀌어버립니다.
강도 안 만났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었는데,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마리아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논법에는 율법사가 '내게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을 이 비유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이 율법사와 강도 만난 자가 같은 위치에 서있게 됩니다.
'내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율법사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율법사 자신은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라고 보고 있지 않으면 이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갖고, '아, 그래, 나는 강도 만나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의 의견을 따라서 나를 강도 만난 자로 고르면 이웃은 사마리아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강도 만난 자라서 사마리아사람이 이웃이 될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이제 그 사마리아사람에게 무엇을 주거나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웃인 사마리아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사마리아사람이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논법에 의하면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면서 이웃사랑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으로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받는 게 사랑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효의 도를 기리기 위해 모범이 되는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와서 가만히 담 너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님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큰 자식이 늙은 노모의 등에 업혀있는 겁니다.
화가 난 임금이 뛰어 들어가서, '네 이놈!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찾았더니 늙은 노모의 등에 업혀? 네가 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효자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임금님, 보시기에 그랬다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낙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등에 업는 게 어머니의 기쁨이십니다, 어떡하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업히라고 하실 때 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업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업혀야지 어떡합니까?
그저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혹시 무릎이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염려가 있지만 어머니가 하도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것, 이게 바로 효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머니께 업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뿐더러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의 이웃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뒤에 나의 이웃으로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이 와계신 예수님이 나의 이웃인데, 그 예수님이 이웃으로 골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웃으로 골라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고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라고 나를 고를 때라야만 사마리아사람이신 예수님이 내게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어떻게 고릅니까?
강도 만난 자로 고르지 않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될 사람이다, 자식을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는 어머니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는 오래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호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으로 오셔서 내게 주시려는 것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게 하려면 내가 나를 골라야 되는데, 나를 강도 만난 자로 골라야만 주님이 이웃이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모습의 나를 고르면 내 이웃은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제 분야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경제학박사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나를 고르고 나면, 이제 앞서서 자식을 잘 기른 훌륭한 어머니들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도 골라집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실패하거나 저기 구석에 쳐 박힌 사람과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로 나를 골라야 선한 사마리아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될 텐데,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언가를 강탈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강탈당한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무얼 강탈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를 볼 때, 이 율법사가 강도 만나서 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이 강탈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지금 연결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후세계라서 죽은 다음으로 시점을 미뤄놓아서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을 지금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천국을 지금 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은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천국을 강탈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어머니는 자식이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가깝고 그 제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가까워지고 싶은 이웃이고, 학 박사가 가까워지고 싶은 이웃이고,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강탈당한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면, 진짜 이웃에 사는 김 서방도 박 서방도, 의사도 박사도 아무도 강탈당한 천국을 내게 찾아주고 다시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이웃이 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영생에 관한 문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말씀하신 이웃사

랑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의 맥락에서의 이웃사랑은 이렇게 내 자신이 강도를 만난 자인 것을, 강도 만나서 원수마귀에 의해서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첫 번째로 만나야 되는 이웃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이웃이 제공하는 손길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 연합하자!'고 주님이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웃사랑이 주제가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전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위한 이웃사랑.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주님의 관점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다, 천국을 강탈당해서 나는 지금 죽게 된 자다'
이 나를 고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를 고르면 예수님은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사람으로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웃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닌 다른 나를 고르고 나면 예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내가 고른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눈 뒤에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것과 내가 죽은 것이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몸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고 천국을 강탈당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가까이 온 사람, 인류역사 속에서 실제로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람인 예수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길 속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강도 만난 자로 골라서 주님이 내 이웃으로 선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속에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나를 나도 같이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가장 가까운 나의 첫 번째 이웃으로 골라지게 하시며,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받아들이며 이웃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